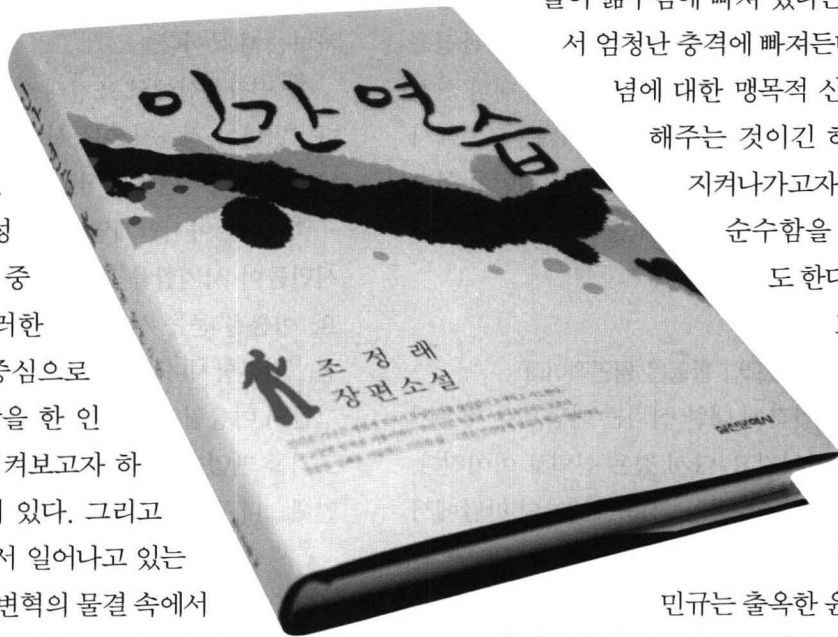


조정래 신작 장편 《인간 연습》의 경우

이념에서 인간으로

글_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설 《인간 연습》에는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 빚어냈던 이념적 문제 인물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한다. 이 문제 인물은 영웅적 성격보다는 인간적 고뇌를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의 설정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한 인간의 삶의 궤적과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욕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대립 구조가 사회 변혁의 물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질서화하고 있는가를 전망하고 있는 치밀한 작가 의식이 크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나간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여를 질타해온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선택에 해당한다.



《인간 연습》의 서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인공 ‘윤혁’이라는 인물의 개인사이다. 그는 남과간첩으로 체포되어 장기 복역하다가 석방된 후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라는 대전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내적 고뇌를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그의 곁에 몇 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배치된다. 하나는 주인공과 함께 복역했던 사회주의자 박동건이다. 박동건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면서 강요된 전향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사회주의 조국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물거품이 되고, 사회주의 낙원으로 믿었던 북한에서 주민

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져든다. 그의 죽음은 이념에 대한 맹목적 신념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한 인간이 지켜나가고자 했던 자기 신념의 순수함을 역으로 보여주기 도 한다.

또 다른 인물로는 윤혁과 친분관계를 맺어온 운동권 출신 지식인 청년 강민규이다. 강민규는 출옥한 윤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혁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챙겨준다. 그리고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념적 충돌과 그 방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주기도 한다. 윤혁은 강민규와 같은 실천적 지식인 청년의 매개 역할에 힘입어 현실 감각을 찾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된다. 박동건과 강민규의 대조적인 역할에 더하여 문제적 인물로서의 윤혁의 존재를 실감 있게 드러내는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윤혁을 감시하고 있는 김 형사이다. 김 형사라는 인물의 설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이지만, 이념이라는 것이 빠져들게 마련인 비인간적인 제도적 성격을 우리는 김 형사의 집요한 행동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 여전히 인간을 옥죄는 이념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간 연습》의 주인공 윤혁이 사상적 동지였던 박동건

《인간 연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념형 인간의 몰락이 아니다.
 작가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그려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연습'을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언명하고 있는
 작가의 말을 다시 음미하는 것은 수준 있는 독자의 몫이다.

의 죽음을 본 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축하게 되는 과정은 '인간에 대한 발견'이라는 '탈이념의 모티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첫째가 윤혁이 우연하게 거리에서 만난 어린 남매와의 인연이다. 윤혁은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곤욕을 당하게 된 어린 남매를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들을 자주 만난다. 그리고 오랜 복역 생활로 인하여 잃어버린 인간적인 심성을 이 어린 애들의 말과 행동과 감성을 통해 스스로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모티프 자체는 전체 서사 구조에서 작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 늙어가는 윤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둘째로는 강민규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호치민 평전》의 번역이다. 이 책의 번역과정을 통해 윤혁은 현실로부터 격리된 생활로 인해 결여되었던 역사와 현실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다. 그는 《호치민 평전》을 번역하면서 베트남이 프랑스를 배격하고 미국을 이기면서 얻어낸 것이 '인민의 승리'라는 점을 깨닫고 공산당의 부패와 타락이 인간에 대한 배반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 번역의 과정 자체는 주인공 윤혁이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자기 신념을 바꾸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내적 모색 과정과도 서로 연결된다.

셋째로는 윤혁이 자기 삶을 정리하기 위해 수기를 쓰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점차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다. 윤혁은 자기 자신이 남다르게 이루어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강민규가 제안한 대로 자신의 사상적 궤적을 성찰하기 위해 수기 집필에 착수한다. 비판적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약적 진술의

형식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윤혁의 수기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니다. 오히려 윤혁이라는 인간이 오랫동안의 수감생활로 인해 잃어버렸던 인간적 감성을 자기 내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조금씩 회복하는 장면을 발견해야 한다. 간첩의 신분으로 서해안에 침투하였던 일, 아내와의 이별, 친구와 처음 만나자마자 간첩으로 신고 되어 체포된 일,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오랫동안 복역하면서 감방에서 느꼈던 자괴감과 참담함, 가족들과의 괴로운 만남, 그리고 강요된 전향 등이 수기의 내용에 담긴다. 윤혁은 수기 집필을 마치면서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연습》의 결말은 윤혁의 수기가 출간된 후 그가 새롭게 선택한 삶으로 이어진다. 윤혁은 최선숙이라는 보육원장을 만난 뒤에 그녀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거처를 옮겨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의 삶을 택한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꿈꾸었던 평등의 삶의 의미를 보육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실천한다. 윤혁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인간 연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념형 인간의 몰락이 아니다. 작가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그려낸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분단 이념의 극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작가의 소망스런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 그 탄생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연습'을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언명하고 있는 작가의 말을 다시 음미하는 것은 수준 있는 독자의 몫이다. **한문**